전주시 지방재정개혁 대통령상 수상

특별교부세도 교부 주요현안 추진 탄력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지방재정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알뜰하고 투명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도 교부받게 돼 주요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1차 사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주시 등 전국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참가, 각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 3.0 시민참여로 생태도시 밑그림을 그리다'를 주제로 올해 중점 추진됐던 생태도시 구축사업과 관련된 재정개혁사례를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발표된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시민헌수운동을 통한 예산절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확대 지정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곡선도로의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수목이식 및 재활용을 통한 예살절감 등이다.

실제 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는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사업에 시민들이 기념나무를 식재하는 시민헌수운동으로 통해 수목식재에 필요한 예산 9300만원을 절감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확대 지정해 1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키도 했다.

특히, 시는 도로개설 시 불필요한 직선도로 대신 자연특성을 살린 완만한 곡선도로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사업비 56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이식이 필요한 수목을 도심 내 자투리 땅 등에 옮겨 심는 등 수목이식 및 재활용을 통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생태도시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이뤄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재정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통해 이뤄지기 보다,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를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보면 자연스럽게 달성 되는 것이다"라며 "이번 수상은 전주시가 하나의 정책에 대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재정개혁을 염두해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출절감과 세입확충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알뜰살뜰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치안"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취임식

전북지방경찰청이 제29대 조희현 청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1일 전북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9대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 취임식'에는 전북경찰 지휘부를 비롯해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희현 청장은 취임사에서 전북경찰의 비전을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치안, 전북경찰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로 제시하며 직원들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끊임없는 소통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진정성이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전북경찰이 다함께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조희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1986년 경찰대학(2기)로 처음 경찰에 입문했으며 서울 서대문서장과 경찰청 정보심의관, 경북청 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하고 제29대 전북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김민근 기자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명희문학관 등 6개 문화시설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9명의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심사를 거쳐 최명희문학관은 혼불기념사업회, 전주부채문화관은 (사)문화연구창, 완판본문화관은 대장경문화학교, 전주소리문화관은 (사)전통문화마을, 전주전통술박물관은 전라슬로푸드문화원으로 각각 보조금 지원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유료 위탁시설인 청명헌은 (사)아리랑문화예술원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각 시설의 협약대상자는 이달 중 협약체결과 공증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탁관리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자가 없는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과 제안금액 미달로 신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예공방촌1단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자 화합한마당 큰잔치 열어

기념식 · 유공자 시상 · 나눔 토크 콘서트 등 진행

전주를 천사도시로 만든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한 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부센터장 박정석)는 1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주지역 70여개 자원봉사 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전주시 자원봉사 결산(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 한해 활동해온 모든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로,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 화합 한마음대회, 나눔 토크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자원봉사단체와 우수 봉사자 등에 대한 표창 및 지난달 마감한 사진·수기공모전 입상자를 포함한 총 145개의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축하공연과 자원봉사자가 하나가 되는 한마음대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봉사와 재난재해, 지역해설사 등 전주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하나로 묶는 만남과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상호간 소통을 위해 평소 자원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가수 션의 토크 콘서트도 마련돼 전주시민들에게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총 17만1,297명으로 지난 2014년(14만8,208명)보다 2만3000여명 증가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실제 자원봉사 참여인원(58,390명)과 자원봉사 활동시간(150만334시간)도 1년 새 각각 1만여명과 31만여시간 증가해 사회 전반에 돌봄과 나눔, 봉사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기자

완산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주완산경찰서가 전북도청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한옥마을 경기전 일대를 중심으로 리플릿,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고 기두행진을 펼쳐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하연 경찰서장은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군산 공군기지서 장갑차 전복 2명 사상

군산의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장갑차가 전복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38전대)와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38전대 내 탄약창 인근 도로에서 K200A1 장갑차가 전복됐다.

당시 장갑차에는 조종수 서모 상병 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서 상병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또 현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병장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중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의 탑승자는 별다른 부상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38전대는 지난달 30일부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함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실시 중이다.

실질적 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24시간 작전과 비행 임무로 나눠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장갑차에 탑승한 장병들도 훈련에 동참하기 위해 부대 내 탄약창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안 정명 600주년 행복부안! 천년도약!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